

# 『古列女傳』의 한글 필사본에 대한 연구 \*

이상훈 \*\*

- 1. 서론
- 2. 서지적 고찰
- 3. 『고열녀전』의 한글 필사본 비교
  - 1) 번역의 양상
  - 2) 국어학적 특징
- 4. 결론

## 1. 서론

이 글은 『古列女傳』의 한글 필사본들을 학계에 소개하고, 국어학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異本들 간의 관계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열녀전』은 前漢의 사상가 劉向이 지은 『列女傳』 7권과 撰者 未詳의 「續列女傳」 1권으로 구성된 책이다.<sup>1)</sup> 이 책은 이른 시기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었는데, 번역을 비롯하여 이 책의 편찬 동기, 보급과 수용, 교훈서로서의 성격 등이 논의되었다(김경미, 2007:54). 반면에 『고열녀전』의 한글본(한글 필사본)에

\* 이 논문은 2015년 5월 9일(토)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개최된 제4회 훈민정음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조교.

1) 유향의 『열녀전』은 여러 차례 전사되다가 宋代에 이르러 古本이 없어지고, 이 시기에 재편집이 이루어졌다. 유향의 『열녀전』 7권에 그 구성과 서술이 유향의 『열녀전』과 유사한 「속열녀전」을 합쳐서 8권의 『고열녀전』이 만들어졌다. 이때 이루어진 것이 현존하는 여러 판본의 근간이 되었고, 유향의 『열녀전』은 곧 『고열녀전』과 동의어가 되었다(이숙인, 2013:13-14).

대한 연구는 이혜순(1986), 우쾌재(1988)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sup>2)</sup>

먼저 이혜순(1986)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글 필사본(『널녀전』, 乾, 坤 2책, 이하 ‘국중도본a’) 1종과 구활자본(『렬녀전』, 1918년 태화서관 간행) 1종을 소개하고, 번역시 나타난 특징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우쾌재(1988)는 3종의 한글 필사본과 2종의 구활자본을 소개하고 각각의 특징에 대해 서술하였다. 우쾌재(1988)가 다룬 한글 필사본은 국중도본a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고널녀전』, 1册, 이하 ‘국중도본’)과 개인 소장본(충북대 이수봉 명예교수 소장)이다.

이 글에서는 先行 研究에서 다룬 한글 필사본 중에서 국중도본만을 다룰 것이다. 국중도본을 제외한 나머지 책들은 모두 『고열녀전』의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이 함께 수록되어 있거나 줄거리만 요약하여 수록한 것이다.<sup>3)</sup> 따라서 『고열녀전』의 한글 필사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논의에서 제외한다.

필자는 『고열녀전』의 한글 필사본으로 선행 연구에서 다룬 국중도본 외에 2종을 더 확인하였다. 국회도서관 소장본(『고널녀전』, 8卷 4冊, 이하 ‘국회본’), 미국 하버드 옌칭도서관 소장본(『고널녀전』, 3卷 1冊, 이하 ‘옌칭본’)이다.<sup>4)</sup> 따라서 이

2) 『고열녀전』의 한글본이 주목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언해본 『고열녀전』을 현재 볼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어숙권의 『쾌관잡기』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가정 계묘년에 중종이 유향의 『列女傳』을 내주며 예조로 하여금 언문으로 번역하게 하였다. 예조가 아뢰어 청해서 申珽과 柳沆이 번역하고 柳耳孫이 글씨를 썼다. 舊本은 본래 顧愷之의 그림인데, 세월이 오래되고 판각이 와해되어 (중략) 李上佐로 하여금 예전 그림을 대강 모방하여 다시 그리게 하였다[嘉靖癸卯 中廟出劉向列女傳 令禮曹麟以諺文 禮曹啓請申珽柳沆翻譯 柳耳孫寫字 舊本本顧愷之畫 而歲久刻訛 (중략) 令李上佐畧倣古圖 而更畫之].” 이를 바탕으로 『고열녀전』의 언해가 중종대에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3) 이혜순(1986:160)에 따르면 국중도본a에는 『고열녀전』 외에 『여인열전』, 『방씨여교』, 『녀행』, 『녀훈』, 『조대가너훈』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고열녀전』과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37편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우쾌재(1988:111-113)에 따르면 이수봉 교수 소장본은 이야기 중심으로 그 줄거리만 요약하여 수록한 것으로, 『고금열녀전』에서 『고열녀전』과 일치하고 있는 부분들을 주로 다룬 『고금열녀전』 계통의 번역본에 가까운 책이다.

4) 『고열녀전』의 한글 필사본을 조사하면서 이 글에서 다룬 3종의 책 외에 2종의 한글 필사본 『열녀전』을 찾을 수 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首題: 널녀전, 2冊(天, 人) 이하 ‘국중도본b’]과 고려대 육당문고(首題: 널녀전, 1권 1책, 청구기호: 육당C15A27, 이하 ‘고려대 소장본’)에 소장된 책이다. 먼저 국중도본b는 여성의 교육을 위한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 재편된 책으로 보인다. 이 책에는 『고열녀전』의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많은 부분이 『小學諺解』 등과 같은 유교적 윤리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이 책은 선행 연구에서

글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다룬 국중도본과 새로 확인한 국회본, 엔칭본 총 3종을 대상으로 논의할 것이다.

## 2. 서지적 고찰

국회본, 국중도본, 엔칭본 모두 序文과 跋文이 없고,<sup>5)</sup> 目次와 圖도 없다. 異本들의 서지 사항을 정리하기에 앞서 각각의 책에 수록된 목록(각 이야기의 제목)을 살펴보겠다.

〈표 1〉 『고열녀전』의 한글 필사본들 간의 목록 비교

	『古列女傳』 <sup>6)</sup>	국회도서관본	국중도본	엔칭본
제1권 母義傳	① 有虞二妃	① 유우이비	① 유우이비	
	② 棗母姜嫄	② 기모강원	② 기모강원	
	③ 契母簡狄	③ 설모간덕	③ 설모간덕	
	④ 啓母塗山	④ 계모도산	④ 계모도산	
	⑤ 湯妃有蟄	⑤ 탕비유신	⑤ 탕비유신	
	⑥ 周室三母	⑥ 쥬실삼모	⑥ 듀실삼모	
	⑦ 衛姑定姜	⑦ 위고정강	⑦ 위고정강	
	⑧ 齊女傳母	⑧ 제녀부모	⑧ 제녀부모	
	⑨ 鄒孟軻母	⑨ 추밍가모	⑨ 추밍가모	
	⑩ 魯季敬姜	⑩ 노계경강	⑩ 노계경강	
	⑪ 楚子發母	⑪ 초즈발모	⑪ 초즈발모	
	⑫ 魯之母師	⑫ 노지모스	⑫ 노지모스	
	⑬ 衛芒慈母	⑬ 위망초모	⑬ 위망초모	
	⑭ 齊田稷母	⑭ 제전직모	⑭ 제전직모	
제2권 賢明傳	① 周宣姜后	① 쥬선강후	① 듀선강후	
	② 齊桓衛姬	② 제환위희	② 제환위희	
	③ 晉文齊姜	③ 진문제강	③ 진문제강	
	④ 秦穆公姬	④ 진목공희	④ 진목공희	
	⑤ 楚莊樊姬	⑤ 초장변희	⑤ 초장변희	
	⑥ 周南之妻	⑥ 쥬남지처	⑥ 듀남지처	

다른 국중도본a와 그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고려대 소장본에는 총 15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2편이 『고열녀전』과 일치한다. 나머지 3편의 이야기 중에서 2편은 출전 미상이고, 1편은 『三綱行實圖』 열녀편의 ‘예종매탁’의 이야기이다.

5) 국중도본과 엔칭본에는 序文은 없으나 各卷의 ‘小序’가 책의 상단에 쓰여 있다.

	⑦ 宋鮑女宗 ⑧ 晉趙襄妻 ⑨ 陶荅子妻 ⑩ 柳下惠妻 ⑪ 魯黔婁妻 ⑫ 齊相御妻 ⑬ 楚接輿妻 ⑭ 楚老萊妻 ⑮ 楚於陵妻	⑦ 송표녀종 ⑧ 딘도최처 ⑨ 도답즈처 ⑩ 뉴하혜처 ⑪ 노검누처 ⑫ 제상어처 ⑬ 초접여처 ⑭ 초노리처 ⑮ 초오릉처	⑦ 송표녀종 ⑧ 딘도최처 ⑨ 도답즈처 ⑩ 뉴하혜처 ⑪ 노검누처 ⑫ 제상어처 ⑬ 초접여처 ⑭ 초노리처 ⑮ 초오릉처	
제3권 仁智傳	① 密康公母 ② 楚武鄧曼 ③ 許穆夫人 ④ 曹僖氏妻 ⑤ 孫叔敖母 ⑥ 晉伯宗妻 ⑦ 衛靈夫人 ⑧ 齊靈仲子 ⑨ 魯臧孫母 ⑩ 晉羊叔姬 ⑪ 晉范氏母 ⑫ 魯公乘嫗 ⑬ 魯漆室女 ⑭ 魏曲沃負 ⑮ 趙將括母	① 밀강공모 ② 초무등만 ③ 허목부인 ④ 조희시처 ⑤ 손숙오모 ⑥ 딘벽종처 ⑦ 위령부인 ⑧ 제령등조 ⑨ 노장손모 ⑩ 딘양숙희 ⑪ 딘법시모 ⑫ 노공승스 ⑬ 노칠실녀 ⑭ 위곡옥부 ⑮ 료당팔모	① 밀강공모 ② 초무등만 ③ 허목부인 ④ 조희시처 ⑤ 손숙오모 ⑥ 딘벽종처 ⑦ 위령부인 ⑧ 제령등조 ⑨ 노장손모 ⑩ 딘양숙희 ⑪ 딘법시모 ⑫ 노공승스 ⑬ 노칠실녀 ⑭ 위곡옥부 ⑮ 료당팔모	
제4권 貞順傳	① 召南申女 ② 宋恭伯姬 ③ 衛寡夫人 <sup>7)</sup> ④ 蔡人之妻 ⑤ 黎莊夫人 ⑥ 齊孝孟姬 ⑦ 息君夫人 ⑧ 齊杞梁妻 ⑨ 楚平伯嬴 ⑩ 楚昭貞姜 ⑪ 楚白貞姬 ⑫ 衛宗二順 ⑬ 魯寡陶嬰 ⑭ 梁寡高行 ⑮ 陳寡孝婦	① 쇼남신녀 ② 송공박희 ③ 위선부인 ④ 채인지처 ⑤ 녀장부인 ⑥ 제효명희 ⑦ 식군부인 <sup>8)</sup> ⑨ 초평박영 ⑩ 초소경강 ⑪ 초박경희 ⑫ 위종이순 ⑬ 노과도영 ⑭ 낭과고행 ⑮ 진과효부	① 쇼남신녀 ② 송공박희 ③ 위선부인 ④ 채인지처 ⑤ 녀장부인 ⑥ 제효명희 ⑦ 식군부인 ⑧ 제그낭처 ⑨ 초평박영 ⑩ 초소경강 ⑪ 초박경희 ⑫ 위종이순 ⑬ 노과도영 ⑭ 낭과고행 ⑮ 진과효부	
제5권 節義傳	① 魯孝義保 ② 楚成鄭督 ③ 晉圉懷嬴 ④ 楚昭越姬 ⑤ 蓋將之妻 ⑥ 魯義姑姊 ⑦ 代趙夫人	① 노효의보 ② 초성녕무 ③ 진어회영 ④ 초소월희 ⑤ 개장지처 ⑥ 노의고조 ⑦ 덕묘부인		① 노효의보 ② 초성녕무 ③ 던어회영 ④ 초소월희 ⑤ 개장지처 ⑥ 노의고조 ⑦ 덕묘부인

	⑧ 齊義繼母 ⑨ 魯秋潔婦 ⑩ 周主忠妾 ⑪ 魏節乳母 ⑫ 梁節姑姊 ⑬ 珠崖二義 ⑭ 邻陽友婦 <sup>9)</sup> ⑮ 京師節女	⑧ 제의계모 ⑨ 노추결부 ⑩ 쥬류통첩 ⑪ 위절유모 ⑫ 냉절고조 ⑬ 쥬애이의 ⑭ 턱양녀네 ⑮ 경수결녀		⑧ 제의계모 ⑨ 노추결부 ⑩ 쥬류통첩 ⑪ 위절유모 ⑫ 냉절고조 ⑬ 쥬애이의 ⑭ 턱양녀네 ⑮ 경수결녀
제6권 續通傳	① 齊管妾嬌 ② 楚江乙母 ③ 晉弓工妻 ④ 齊傷槐女 ⑤ 楚野辨女 ⑥ 阿谷處女 ⑦ 趙津女娟 ⑧ 趙佛盼母 ⑨ 齊威虞姬 ⑩ 齊鍾離春 ⑪ 齊宿瘤女 ⑫ 齊孤逐女 ⑬ 楚處莊姪 ⑭ 齊女徐吾 ⑮ 齊太倉女	① 제관첩정 ② 초강을모 ③ 딘궁공처 ④ 제상괴녀 ⑤ 초야변녀 ⑥ 아곡처녀 ⑦ 도진녀연 ⑧ 도필힐모 ⑨ 제위우희 ⑩ 제종니춘 ⑪ 제숙뉴녀 ⑫ 제고죽녀 ⑬ 초처장질 ⑭ 제녀서오 ⑮ 제티창녀		① 제관첩정 <sup>10)</sup>
제7권 孽嬖傳	① 夏桀末喜 <sup>11)</sup> ② 殷紂妲己 ③ 周幽褒姒 ④ 衛宣公姜 ⑤ 魯桓文姜 ⑥ 魯莊哀姜 ⑦ 晉獻驪姬 ⑧ 魯宣繆姜 ⑨ 陳女夏姬 ⑩ 齊靈聲姬 ⑪ 齊東郭姜 ⑫ 衛二亂女 ⑬ 趙靈吳女 ⑭ 楚考李后 ⑮ 趙悼倡后	① 하桀미희 ② 은쥬달기 ③ 쥬유포스 ④ 위선공강 ⑤ 노환문강 ⑥ 노장이강 ⑦ 딘현녀희 ⑧ 노선목강 ⑨ 진녀하희 ⑩ 제령성희 ⑪ 제동파강 ⑫ 위이난녀 ⑬ 도녕오녀 ⑭ 초고니후 ⑮ 도도창후		
제8권 續列女傳	① 周郊婦人 ② 陳國辯女 ③ 蕃政妓 ④ 王孫氏母 ⑤ 陳豐母 ⑥ 王陵母 ⑦ 張湯母	① 듀교부인 ② 진변녀 변통 ③ 섬정조 절의 ④ 왕손시모 절의 ⑤ 진영모 현명 ⑥ 왕능모 절의 ⑦ 당탕모 인지		

⑧ 雀不疑母 ⑨ 楊夫人 ⑩ 霍夫人顯 ⑪ 嚴延年母 ⑫ 漢馮昭儀 ⑬ 王章妻女 ⑭ 班婕妤 ⑮ 趵飛燕姊姊 ⑯ 漢孝平王后 ⑰ 更始韓夫人 ⑱ 梁鴻妻 ⑲ 明德馬后 ⑳ 梁夫人嬪	⑧ 춘불의모 모의 ⑨ 양부인 현명 ⑩ 과부인현 열폐 ⑪ 엄연년모 인지 ⑫ 한풍소의 결의 ⑬ 왕장처녀 인지 ⑭ 반첩여 변통 ⑮ 도비연즈례 열폐 ⑯ 한효평왕후 명순 ⑰ 경시한부인 열폐 ⑱ 냥홍처 현명 ⑲ 명덕마후 모의 ⑳ 냥부인득 변통	
--	---	--

〈표 1〉은 『古列女傳』과 『고열녀전』의 한글 필사본들 간의 목록(각 이야기의 제목)을 비교한 것이다. 『古列女傳』과 비교했을 때, 국회본은 한 편의 이야기만 누락된 총 8권 123편으로 구성된 책이다. 『고열녀전』의 언해본이 모두 발견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 언해문으로 책의 내용을 대부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책이다. 반면에 국중도본은 권1의 제1화에서부터 권4의 제7화까지만 수록되어 있고, 엔칭본은 권4의 제8화에서부터 권6의 제1화(일부)까지만 수록되어 있다.

각 이본들의 서지 사항을 살펴보겠다. 먼저 국회본부터 살펴보겠다.

6) 『古列女傳』의 목차는 이숙인(2013)을 참고하였다. 이숙인(2013)은 四部叢刊本 『古列女傳』과 『열녀전보주』 8권(臺彎商務印書館, 1968)을 저본으로 한 것이다.

7) 우쾌재(1988:62-68)에서는 『古列女傳』의 萬曆本(1606년)과 道光本(1825년)의 목차를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萬曆本과 道光本에는 ‘衛寡夫人’이 아닌 ‘衛宣夫人’으로 되어 있어 필사본들의 제목과 같다.

8) 이야기의 제목은 ‘식군부인’으로 되어 있으나, ‘齊杞梁妻’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즉 국회도서관본에서 유일하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식군부인’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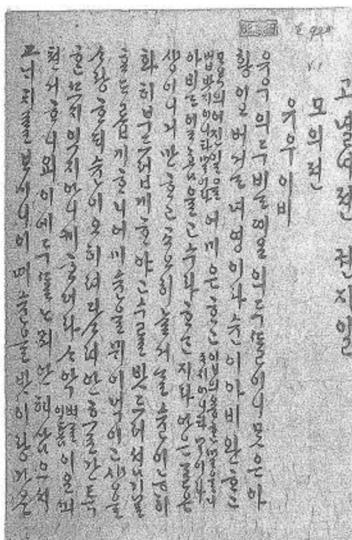
9) 萬曆本에는 ‘邵陽友姊’, 道光本 ‘邵陽友姊’로 되어 있다. 필사본들은 ‘티양녀례’로 되어 있는데, ‘邵(합)’을 비슷한 ‘邵(태)’로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10) 엔칭본의 ‘제관첩정’은 총 4행만이 실려 있다.

11) 萬曆本과 道光本에도 모두 ‘夏桀末喜’로 되어 있다.

〈표 2〉 국회도서관 소장본(국회본)의 서지 사항

表題	古列女傳
首題	고열녀전
권·책수	8卷 4冊(春, 夏, 秋, 冬) <sup>12)</sup>
성격	한글 필사본
책 크기	26.3 × 22cm
행·자수	14~15행 16~22자
청구기호	OD 920-336
기타 형태사항	序文, 跋文, 目次 없음. 註雙行, 1冊(春)의 마지막 장에 필사기가 있음.



〈그림 1〉 국회본, ‘모의전’ 첫 장

이 책은 『고열녀전』의 본문과 논평(頌, 賛)을<sup>13)</sup> 모두 필사한 책이다. 書體는

12) 한 책에 두 권씩 製冊되어 있다. ‘春’(권1, 2), ‘夏’(권3, 4), ‘秋’(권5, 6), ‘冬’(권7, 8)으로 되어 있다.

13) 列傳은 주인공의 행적을 기술한 본문 후에 ‘史臣曰’ 등의 賛이 계속되는데, 『고열녀전』에 도 행적 부분 뒤에 ‘君子曰’, ‘詩云 (중략) 此之謂也’, ‘頌曰’, ‘贊曰’ 등이 반드시 기술되어 있다(이혜순, 1985:170).

크게 3~4가지 정도가 쓰이고 있는데, 한 사람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底本을 몇 명이 나누어서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권2, ‘현명전’의 마지막 장에는 다음과 같은 필사기가 있다.

이 칙을 갑즈동의 늄의 칙을 어더 여러히 하 츄 동 삼권만 벗겼더니 이십년만의 춘권 마자 벗기니 쇠훤은 혼나 글시는 영동이 노필 되여시니 한심호되 즐손은 짜히 보라 계미동의 황곤 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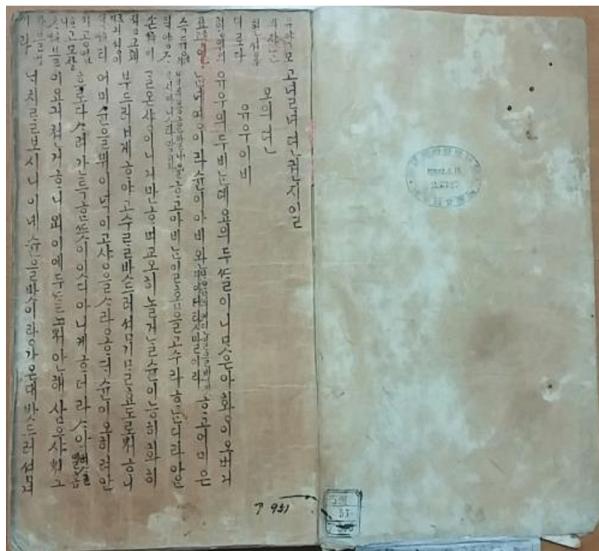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책의 성격, 필사 시기, 편찬 목적, 필사자 등에 대한 것들을 추정할 수 있다. 먼저 이 책은 底本을 보고 필사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底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알 수 없으나 남의 책을 얻어 베꼈다는 언급을 통해 이 책의 저본이 분명히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책의 필사자는 갑자년에 필사를 시작해서 20년이 지난 후에 필사를 마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4)</sup> 그리고 이 책은 자손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편찬했다는 것과 이 책의 필사자는 ‘황곤’이라는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음은 국중도본을 살펴보겠다.

〈표 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국중도본)의 서지 사항

表題	고널녀년
首題	고널녀년
권·책수	4卷 1冊
성격	한글 필사본
책 크기	30.4 x 20.6 cm
행·자수	10~12행 17~20자
청구기호	한古朝57-가951
기타 형태사항	序文, 跋文, 目次 罫음, 計雙行

14) 이 책에 쓰인 언어 사실을 볼 때, 이 책은 18세기 후반 이후에 필사된 자료로 추정된다. 따라서 필사기에 언급된 갑자년은 1804년 또는 1864년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본과 비교했을 때, 이 책이 좀 더 후대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필사기에 쓰인 갑자년은 1864년일 가능성이 높다(자세한 논의는 3장 2절을 참조).



〈그림 2〉 국중도본, ‘모의년’ 첫 장

이 책에는 권1의 제1화 ‘유우이비’부터 권4의 제7화 ‘식군부인’까지만 수록되어 있고, 다음 이야기가 시작될 때뿐만 아니라 卷이 바뀔 때에도 장을 달리하지 않고 행만 바꾸어서 필사되었다.<sup>15)</sup> 書體는 고딕체에 가까운 正字體이다.<sup>16)</sup>

이 책의 특이 사항으로는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책의 상단에 各卷의 小序에 토를 단 후 音讀하고 이를 번역하여 작은 글자로 적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 (1) ㄱ. 유약모의자는 현성유디로다 헝위의표호고 언즉등의라 (중략) 모의 莫尼는 현성호고 디혜 잇도다 헝실이 의표되고 말숨은 곳 의맛는도다 〈국중도본, 모의년 1a-1b〉
- ㄴ. 惟若母儀 賢聖有智 行爲儀表 言則中義<sup>17)</sup>

15) 필사자는 이 책의 마지막인 권4의 제7화 ‘식군부인’의 내용을 모두 필사한 후 다음을 여백으로 남겨두었다. 아마도 필사자는 ‘식군부인’까지만 필사를 하고 책으로 엮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 8권으로 구성된 『고열녀전』을 필사하면서 卷이 바뀌는 부분도 아닌 중간에서 필사를 그만 둔 이유를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16) 이 책의 서체는 ‘궁체’에 가깝다. 궁체를 훌림의 정도에 따라 ‘정자체’, 예사흘림체, 아주흘림체’로 분류한 홍윤표(2012)의 견해에 따르면 이 책에 쓰인 서체는 ‘정자체’에 속한다. 궁체는 19세기 이후 언간은 물론 고소설에서 널리 쓰이는 서체이다.

17) 『고열녀전』(道光本) 권1, 母儀傳 小序(우쾌재, 1988:102에서 인용).

(1ㄱ)은 권1 모의년의 ‘小序’에 토를 단 후 음讀하고 번역한 것이고, (1ㄴ)은 한문본 ‘母儀傳’의 ‘小序’ 부분이다. 이러한 방식은 이 책의 권2, ‘현명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권3, ‘인지년’과 권4, ‘정순년’에는 각卷의 小序에 토를 단 후 음讀한 것은 수록하지 않고, 번역한 것만을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의 상단에는 각卷의 小序 뿐만 아니라 각 이야기의 마지막에 있는 ‘頌, 賛’이 小序와 같은 방식으로 쓰여 있다.

- (2) ㄱ. 송월 원시이비는 데요지네로다 (중략) 송에 올오더 쳐엄 비롯는 이비는 데요의 쟁이로다 <국중도본, 모의년 1b-2a>  
 ㄴ. 頌曰 元始二妃 帝堯之女

(2ㄱ)은 ‘유우이비’의 ‘頌’에 토를 단 후 음讀하고 번역한 것이고, (2ㄴ)은 한문본 ‘有虞二妃’의 ‘頌’ 부분이다. 이러한 방식은 ‘모의년’의 제6화 ‘듀실삼모’까지만 보이고, 제7화 ‘위고정강’부터는 ‘頌’에 토를 단 후 음讀한 것은 수록하지 않고, 번역한 것만을 수록하고 있다.

끝으로 엔칭본을 살펴보겠다.

<표 4> Harvard-Yenching Library 소장본(엔칭본)의 서지 사항

表題	.
首題	고널녀년
권·책수	3卷 1冊
성격	한글 필사본
책 크기	30.3 x 21.0cm
행·자수	12행 18~22자
청구기호	TK5973.52-4142
기타 형태사항	序文,跋文, 目次 없음. 註雙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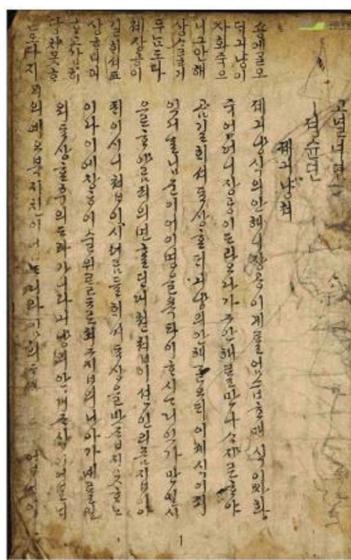
이 책에는 권4의 제8화 ‘제괴낭쳐’부터 권6의 제1화 ‘제관첩청’(일부)까지 수록되어 있다.<sup>18)</sup> 국중도본이 권1의 제1화부터 권4의 제7화까지 내용이 수록되어 있

18) 권6의 제1화 ‘제관첩청’은 총 4행만이 실려 있어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落張에 의

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옌칭본은 그 다음 이야기인 권4의 제8화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sup>19)</sup>

書體는 크게 두 종류가 쓰이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전체 24편의 이야기 중에서 권4의 제15화인 ‘진과효부’와 권5의 제1화인 ‘노효의보’만 正字體이고, 다른 부분은 모두 흘림체이다.<sup>20)</sup>

이 책은 국중도본과 형식이 동일하다. 먼저 卷이 바뀔 때에도 장을 달리하지 않고 행만 바꾸어서 필사하였다. 그리고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각 이야기의 마지막에 있는 ‘頌’을 번역하여 책의 상단에 수록한 점도 국중도본과 동일하다. 권5 ‘결의전’의 시작 부분을 보면 小序도 번역하여 상단에 필사하였다.<sup>21)</sup>



<그림 3> 옌칭본, ‘정순던’ 첫 장

해 후대에 改裝한 것으로 보인다.

19) 옌칭본과 국중도본은 卷이 바뀔 때에도 행만 바꾸어 필사한 점, 책의 상단에 小序와 頌을 번역하여 수록한 점 등 그 형식도 동일하다. 두 문헌이 하나의 전체를 구성하는 하위의 책들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두 책의 필사체가 확연히 달라 동일한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20) 책의 상단에 쓰여진 ‘頌’도 모두 正字體이다.

21) 반면에 小序와 頌에 토를 단 후 음讀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 3. 『고열녀전』의 한글 필사본 비교

#### 1) 번역의 양상

이 책들의 번역 양상은 대체로 축자역에 가까운 直譯이다. 이로 인해 각 異本에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등장한다.

(3) ㄱ. 부인이 되여시니 가히 뼈 샤특흔 헝실을 둘 거시 아니니라 〈국회본, 모의년 13b〉

ㄴ. 군지 흙문을 혀야 뼈 일홈을 세우고 슬기를 널니는지라 〈국중도본, 모의년 14b〉

ㄷ. 첨이 음난흔 헝실이 이신즉 뼈 세양의 사라실 길히 업소니 〈엔칭본, 정순년 3a〉

(4) ㄱ. 그 교화를 닐위니 및 계 조라매 그 덕의 화하고 〈국회본, 모의년 5b〉

ㄴ. 은혜 베포기를 즐기더니 및 설이 조라매 〈국중도본, 모의년 4b〉

ㄷ. 위종이순은 위종 실녕왕의 부인과 및 그 부첩이라 〈엔칭본, 정순년 5b〉

(3), (4)는 원문의 ‘以’, ‘及’ 등을 축자적으로 번역한 결과 불필요한 ‘뼈’, ‘및’ 등이 추가된 예이다.<sup>22)</sup> 이러한 예들은 축자역을 위주로 한 경서 언해류에서 주로 보인다.

다음은 異本에 따라 번역된 내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다.

(5) ㄱ. 그 조손이 더 :로 박의셔 사더니 은 탕의 니르러 니러나 련지 되니 군지 니르되 간격이 어질고 네 잇도다 〈국회본, 모의년 5a〉

ㄴ. 그 조손이 더 :로 박의셔 사더니 은 탕의 니르러 나 련지 니르더 간격이 어딜고 네 잇도다 〈국중도본, 모의년 5a〉

ㄷ. 其後世世居毫 至殷湯興爲天子 君子謂 簡狄仁而有禮<sup>23)</sup>

(6) ㄱ. 안기률 죄우쳐 아니호며 셔기률 죄드드지 아니호며 샤특흔 마술 먹지 아

22) 각 이본들에는 ‘뼈’, ‘및’ 외에도 ‘使’와 ‘得’의 번역어인 ‘흐여곰’, ‘시려곰’ 등도 많이 보인다.

23) 한문 원문은 이숙인(2013)을 인용하였다.

니호며 베힌 거시 벌르지 아니호면 먹지 아니호며 <국회본, 모의년 8a>

- ㄴ. 안기를 쳐오쳐 아니호며 베힌 거시 바로디 아니커든 먹디 아니호며 <국  
중도본, 모의년 7b>
- ㄷ. 坐不邊 立不蹕 不食邪味 割不正不食

(7) ㄱ. 그 고든 거슬 일웠다 호야 이에 일흠헛야 굽오더 정강이 부절이 잇도다  
<국회본, 정순년 10b>

- ㄴ. 그 고든 거슬 일忤다 호야 이에 일흠헛야 굽오더 정강이라 호니 군지 굽  
오더 정강이 부절이 잇도다 <엔칭본, 정순년 4a>
- ㄷ. 以成其貞 乃號之曰 貞姜 爵子謂 貞姜有婦節

(8) ㄱ. 혼번 도라보면 어들더 도라보지 아니믄 엇지오 <국회본, 절의년 2a>

- ㄴ. 혼번 도라보면 가히 어드리니 가히 어들더 도라보디 아니호몬 엇지오  
<엔칭본, 절의년 12a>
- ㄷ. 一顧可以得之 而遂不顧 何也

(5), (6)은 국회본과 국중도본을 비교한 것이고, (7), (8)은 국회본과 엔칭본을 비교한 것이다. 세 책 모두 기본적으로 직역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약간씩 차이가 있다. (5), (6)을 보면 국회본이 국중도본에 비해서 좀 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되었음을 볼 수 있다. 국중도본에 빠져 있는 부분이 국회본에는 번역되어 있다. 반면에 (7), (8)을 보면 엔칭본이 국회본에 비해서 좀 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동일한 원문을 다른 표현으로 번역한 부분을 살펴보겠다.

(9) ㄱ. 죄 종묘의 죄 업소를 고호라 혼대 <국회본, 모의년 12a>

- ㄴ. 죄 업순 줄을 종묘의 고호라 혼대 <국중도본, 모의년 12a>
- ㄷ. 且告無罪於廟

(10) ㄱ. 지아비 과연 죽고 도라 오지 못호니 뷔 쇠어미 봉양을 게얼니 아니호야  
<국회본, 정순년 15a>

- ㄴ. 집아비 과연 죽고 못 도라 오니 뷔 쇠어미 봉양호를 게얼니 아니호야  
<엔칭본, 정순년 9a>
- ㄷ. 夫果死不還 婦養姑不衰

(9)는 국회본과 국중도본을 비교한 것이고, (10)은 국회본과 엔칭본을 비교한 것이다. 동일한 원문을 서로 다른 표현으로 번역하였다. (9)는 내포문을 만드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9ㄱ)에서는 명사형 어미를 사용하였고, (9ㄴ)에서는 관형 사형 어미와 형식명사 ‘줄’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그리고 (10)에서는 한문 원문의 ‘死不還’을 (10ㄱ)은 장형 부정문으로, (10ㄴ)은 단형 부정문으로 번역하였다.

## 2) 국어학적 특징

이 장에서는 각 異本에 나타나는 몇 가지 국어학적 특징을 대략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책들의 필사시기와 先後 관계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먼저 몇몇 어휘를 통해 이 책들의 필사시기를 추정해 보겠다.

- (11) ㄱ. 게어르고 〈국회본, 모의년 1b〉, 게어르며 〈13a〉
  - ㄴ. 게어르고 〈국중도본, 모의년 1b〉, 게어으르며<sup>24)</sup> 〈13a〉
  - ㄷ. 게어른 〈엔칭본, 정순년 6a〉
- 
- (12) ㄱ. 쓴허지더 〈국회본, 모의년 18a〉, 쓴쳐지지 〈모의년 19a〉
  - ㄴ. 쓴허디더 〈국중도본, 모의년 18a〉, 쓴처디 : 〈모의년 19a〉
  - ㄷ. 쓴허 브리고 〈엔칭본, 정순년 2b〉

(11)은 ‘게어르-’, (12)는 ‘婪-’, ‘婪-’(斷)가 쓰인 예이다. 이들은 17세기 중반의 문헌에서 처음 보인다. ‘게어르-’의 중세어 시기 어형은 현대어와 같은 ‘게으르-’이고, ‘婪-’, ‘婪-’의 중세어 시기 어형은 ‘夬-’이다.<sup>25)</sup>

- (13) ㄱ. 일즉이 과거호물 어엿비 넉이노라 〈국회본, 정순년 15b〉
- ㄴ. 아홉 조식 둔 과거호눈 어미니 〈국중도본, 모의년 25b〉
- ㄷ. 부인은 조식이 업고 과거호눈지라 〈엔칭본, 정순년 5b〉

24) 국중도본에는 ‘게어으르며’ 외에도 ‘마시오고’, ‘노호오물’, ‘져여비’ 등과 같이 선행 또는 후행하는 음절의 모음을 더 표기한 예들이 있다.

25) 중세어의 ‘夬-’는 현대어의 ‘그치-’, ‘婪-’의 의미를 포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중세어 시기에는 ‘夬-’에 접사 ‘-이-’가 통합한 ‘그치-’도 함께 사용되었다.

(13)은 ‘과거호-’(寡居)가 쓰인 예이다. 이들은 모두 한문 원문의 ‘寡’에 대응하고 있다. “과부로 지내다” 정도의 의미를 갖는 ‘과거호-’는 18세기 중반의 문헌에서 처음 보이며, 현대에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sup>26)</sup>

- (14) ㄱ. 문벽은 어룬인 체호는 양을 보고 〈국회본, 모의연 18a〉  
ㄴ. 문벽은 스 : 로 어룬인 체호는 양을 보고 〈국중도본, 모의연 18a〉
- (15) ㄱ. 그림자처로 봇조출 줄을 알미려라 〈국회본, 모의연 7a〉  
ㄴ. 그림자처로 봇조출 줄을 알미려라 〈국중도본, 모의연 7a〉

(14)는 형식명사 ‘체’가 쓰인 예이고, (15)는 조사 ‘처로’가 쓰인 예이다. ‘체’와 ‘처로’는 모두 명사 ‘體(體)’에서 기원한 것이다. (15)의 ‘처로’는 조사 ‘로’가 결합한 ‘體로’, ‘體로’에서 형성된 것으로 ‘여로(〈體로〉)’의 구개음화된 어형이다. ‘처로’는 17세기 중반의 문헌에서 처음 문증되며, 19세기 후반까지 보인다.

- (16) ㄱ. 이제 네 나히 점고 벼슬이 는즈므로빠 더브려 노는 채 다 위호야 신부립  
호니 네 느지 못호미 쪼호 붉도다 〈국회본, 모의연 18b〉
- ㄴ. 이제 너의 나히 점 벼슬이 는즈므로빠 더브려 노는 채 다 위호야 신브립  
호니 네 느디 못호미 쪼호 붉도다 〈국중도본, 모의연 18b〉
- ㄷ. 今以子年之少 而位之卑 所與遊者 皆爲服役 子之不益 亦以明矣

(16ㄱ)은 ‘신부립호-’, (16ㄴ)은 ‘신브립호-’가 쓰인 예이다. 한문 원문의 ‘服役’에 대응하는 것으로, 현대어의 ‘심부름(하-)’으로 이어졌다. ‘신부립(신브립)’은 18세기 문헌인 『을병연행록』에서 처음 확인된다.<sup>27)</sup>

26) ‘과부로 지내다’는 의미의 ‘과거호-’는 『종덕신편언해』(1758)에서 처음 문증된다. “걸이 과부드려 널너 굽오더 네 과거호야 오더 혼 아들이 있느니.” 〈종덕신편언해 下 63a〉 ‘寡居호-’는 조금 이른 시기의 『여사서언해』(1737)에서 처음 문증된다. “王氏 集敬公의 元配 되앗더니 三十애 寡居호야.” 〈여사서언해, 4:1a〉

27) 반면에 ‘심브립(호-)’, ‘심부립(호-)’은 17세기 문헌인 『서궁일기』, 『계축일기』에서 처음 보인다.

- (17) ㄱ. 그릇 삼켰더니 드드여 설을 나흐니라 〈국회본, 모의년 4b〉  
 ㄴ. 그릇 싱겼더니 드 :여 설 나흐니라 〈국중도본, 모의년 4b〉

(17ㄱ)은 ‘삼키-’, (17ㄴ)은 ‘싱키-’가 쓰인 예이다. ‘삼키-(<슴키-’는 중세어에서 ‘슴끼-/-습기-’로 나타나던 어형으로, 18세기 후반부터 문증된다.<sup>28)</sup> (17ㄴ)의 ‘싱키-’는 움라우트와 조음위치동화(연구개음화)가 반영된 어형이다.

이상의 예들을 통해 異本들은 18세기 후반 이후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갑자년에 필사를 시작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국회본은 1804년 또는 1864년 중에 필사를 시작했다는 추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원순모음화와 ㄷ구개음화의 실현 양상을 바탕으로 이본들 간의 先後 관계를 살펴보겠다. 먼저 원순모음화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겠다.

세 책 모두 형태소 경계에서 원순모음화된 예는 보이지 않고, 형태소 내부에서 원순모음화된 예는 보인다.

- (18) ㄱ. 무어스로舛 〈국회본, 모의년 14b〉 불너 〈18a〉, 물이 〈19a〉  
 ㄴ. 무어스로舛 〈국중도본, 모의년 14b〉 불너 〈18a〉, 물이 〈19a〉  
 ㄷ. 무어시 〈엔칭본, 정순년 3a〉 물이 〈4a〉

- (19) ㄱ. 신부립흐니 〈국회본, 모의년 18b〉, 머를면 〈12b〉, 허물 〈15b〉, 더부러 〈속 널녀년, 1a〉  
 ㄴ. 신브립흐니 〈국중도본, 모의년 18b〉, 머를면 〈12b〉, 허물 〈15b〉, 더브러 〈20b〉  
 ㄷ. 머므르고 〈엔칭본, 정순년 3b〉, 강물 〈3b〉, 더브러 〈10b〉

(18ㄱ, 19ㄱ)은 국회본, (18ㄴ, 19ㄴ)은 국중도본, (18ㄷ, 19ㄷ)은 엔칭본의 예이다. 같은 어형이지만 이본에 따라 원순모음화가 다르게 반영되었음을 볼 수 있다.<sup>29)</sup> 국회본과 엔칭본은 어두 음절과 비어두 음절에서 원순모음화된 예를 찾

28) ‘삼키-’는 『경신록언석』(1796)에서 처음 문증된다. “아오로 삼키며 교역흐미 불명흐더니.” 〈경신록언석, 18b〉

29) 같은 어형이라고 해도 모든 경우에 원순모음화가 반영된 것은 아니다. 국회본의 경우에도 ‘물이’ 뿐만 아니라 ‘률이’도 함께 쓰이고 있으며, ‘더부러’의 경우에는 권8, ‘속널녀년’에서만 확인된다.

을 수 있으나 국중도본에는 비어두 음절에서 원순모음화가 반영된 예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엔칭본은 국회본과 비교했을 때, 원순모음화가 비슷하게 반영되어 있다.

다음은 몇몇 어형들을 통해 ㄷ구개음화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겠다.<sup>30)</sup>

〈표 5〉 ㄷ구개음화의 실현 양상(1)

전시기 어형	어형	국회본	국중도본
디나-	디나-	1회 (33%)	2회 (66%)
	지나-	2회 (66%)	1회 (33%)
엇디	엇디	0회 (0%)	8회 (100%)
	엇지	8회 (100%)	0회 (0%)
-디 <sup>31)</sup>	-디	2회 (2.9%)	59회 (89.3%)
	-지	68회 (97.1%)	7회 (10.7%)

〈표 6〉 ㄷ구개음화의 실현 양상(2)

전시기 어형	어형	국회본	엔칭본
디나-	디나-	0 (0%)	1 (100%)
	지나-	1 (100%)	0 (0%)
엇디	엇디	0 (0%)	0 (0%)
	엇지	7 (100%)	7 (100%)
-디	-디	13회 (30.9%)	13회 (32.5%)
	-지	29회 (69.1%)	27회 (67.5%)

〈표 5〉와 〈표 6〉을 통해 ㄷ구개음화의 반영 비율이 국중도본이 가장 낮고, 국회본이 가장 높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국회본과 국중도본은 반영된 비율의 차이가 큰 반면에, 국회본과 엔칭본은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32)</sup>

30) 〈표 5〉는 국회본과 국중도본의 동일한 13편의 이야기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표 6〉은 국회본과 엔칭본의 동일한 9편의 이야기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31) '-디 아니(흐)-'와 '-디 못흐-' 구성에 쓰이는 '-디'에 한정하여 조사한 것이다.

32) 국회본의 '-디 아니(흐)-'와 '-디 못흐-' 구성에 쓰이는 '-디'의 ㄷ구개음화의 반영 비율

위의 논의를 통해 국중도본이 가장 이른 시기에 필사되었으며 국회본과 엔칭본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필사되었지만 국회본이 조금 더 후대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국회본은 1804년 또는 1864년에 필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다른 책들과의 先後 관계를 살펴본 결과 국회본이 가장 후대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런데 세 책 모두 18세기 후반 이후에 필사된 자료로 판단되므로, 국회본의 필사기에 있는 갑자년은 1804년 보다는 1864년일 가능성이 높다.

#### 4. 결론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古列女傳』의 한글 필사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다룬 한글 필사본은 국회도서관 소장본(『고널녀전』, 8卷 4冊),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고널녀년』, 4卷 1冊), 미국 하버드 엔칭도서관 소장본(『고널녀년』, 3卷 1冊) 총 3종이다.

각 異本들의 서지 사항, 목록 비교, 번역 양상 등을 살펴보았고, 국어학적 특징을 바탕으로 이본들의 필사시기와 先後 관계를 추정해 보았다. 세 책 모두 18세기 후반 이후에 필사된 자료로 추정하였고, 이 책들 간의 선후관계는 국중도본이 가장 이른 시기에 필사되었고 국회본과 엔칭본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필사되었으나, 국회본이 조금 더 후대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주제어 : 고열녀전, 한글필사본, 열녀전, 필사본, 유향

투고일(2015. 7. 24), 심사시작일(2015. 7. 27), 심사완료일(2015. 8. 21)

---

이 <표 5>에서는 97.1%였는데, <표 6>에서는 69.1%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5>는 권1과 권2의 이야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고, <표 6>은 권4와 권5의 이야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권별로 반영된 언어 사실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장명관(2009), 『열녀의 탄생』, 돌베개.
- 백두현(2015), 『한글문학』, 태학사.
- 우쾌제(1988), 『韓國家庭小說研究』, 민족문화연구총서.
- 이광호(2004), 『근대국어문법론』, 태학사.
- 이광호 외(2007), 『장서각 소장 한글필사자료 연구』, 태학사.
- 이숙인(2013), 『열녀전』, 글항아리.
- 이현희(1994), 『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 홍윤표(1994), 『근대국어연구(I)』, 태학사.
- \_\_\_\_\_ (2013), 『한글 이야기』 1, 2, 태학사.
- 강현경(1998), 「유향 『열녀전』의 찬술본의와 유전양상」, 『어문연구』 30, 7-34.
- 김경미(2007), 「『열녀전』의 보급과 전개」, 『한국문화연구』 13, 이화여자대학교 한국 문화연구원, 51-82.
- 김민지(2014), 「한글본 『삼관기』에 대하여」, 『어문연구』 42-4, 111-137.
- 김소영(2014), 「‘곶-’…‘곶-’의 변화과정에 대하여」, 『국어학』 70, 185-205.
- 김주필(2013), 「ㄷ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 현상의 통시적 변화와 특성」, 『진단학보』 118호, 95-137.
- 박부자(2007), 「장서각 소장 왕실 실기류」, 『장서각 소장 한글필사자료 연구』, 태학사, 247-302.
- 배영환(2007), 「장서각 소장 영조 어제 언해서류(1)」, 『장서각 소장 한글필사자료 연구』, 태학사, 21-85.
- 백두현(1997), 「19세기 국어의 음운사적 고찰: 모음론」, 『한국문화』 20, 1-46.
- 신성철(2007), 「장서각 소장 영조 어제 언해서류(2)」, 『장서각 소장 한글필사자료 연구』, 태학사, 87-161.
- 오종갑(1987), 「국어의 원순모음화 현상」, 『한민족어문학』 14, 한민족어문학학회, 69-85.
- 이래호(2007), 「장서각 소장 사서 언해서류」, 『장서각 소장 한글필사자료 연구』, 태학사, 163-245.
- 이현희(1994), 「19세기 국어의 문법사적 고찰」, 『한국문화』 15, 57-81.
- 이혜순(1986), 「『렬녀전』 연구」, 『이화여문논집』 8, 157-178.
- 홍윤표(2012), 「훈민정음체와 궁체」, 쉼표 마침표(2012.9.18.), 국립국어원.

〈Abstract〉

A Study on the Hangeul Manuscript of 『Koyolnyojun(古列女傳)』

Lee Sang-Hoon \*

In this paper, three kinds of hangeul manuscript of 『Koyolnyojun(古列女傳)』 were researched: the version of Korean National Assembly Library(8卷 4冊), the version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4卷 1冊), the version of The Harvard-Yenching Library(3卷 1冊).

By examining bibliographies, comparison of list and aspects of translation, I estimated transcription date and assumed sequential relationship among the Variants through linguistic characteristics. All of the variants were transcribed on or after the late 18th century. The version of The National Library was transcribed the earliest among them, Although the version of Assembly Library and Yenching Library were transcribed almost the same time, I assumed that the version of Assembly Library was transcribed later than the version of Yenching Library.

**Key Words** : Koyolnyojun(古列女傳), Hangeul Manuscript, Yolnyojun, Manuscript, Liu Xiang(劉向)

---

\* Assistant instructor, 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Language Education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